

##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의의

김 동 건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 1. 외국인투자의 정의

외국인투자란 학문적으로는 정교하고 섬세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여 외국인이 주식 또는 일정지분소유를 통하여 경영에 직접, 간접의 형태로 참여하고자 현금 또는 자본재 등의 가치물을 납입하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외국인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자산의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획득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하며, 반면에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수입 등의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간접투자”라고 칭한다. 이때 외국인이 투자소요액 100%를 투자

하여 대상회사를 완전소유, 통제하는 형태를 단독투자라 하고,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합작투자라고 한다. 단독투자는 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많이 하는 직접투자방식이며, 일본계 기업은 합작투자방식이 많다.

최근에는 인수, 합병(M&A)형 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M&A형 직접투자란 기업이 특유한 경쟁우위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 시장을 석권할 목적으로 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지만 OECD 국가들에게는 M&A형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OECD가입 후 자본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투자재원조달, 고용창출, 기술습득, 그리고 국제수지개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자 할 때 자본을 차입하는 차관의 형태와 외국인직접투자, 이렇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차관과 비교하여 외채상환부담이 없으므로 재무구조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유발하는 고용창출 및 기술습득 효과는 외국인투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효과들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고용수요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노동집약적 외국인투자일 경우에는 고용증대효과가 더크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술이 국내에 이전되는 기술습득효과도 다양한 연계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인바 이는 생산제품이 국내의 다른 기업제품의 중간재가 되어 새로운 기술력의 제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자본과 함께 선진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국내의 경쟁기업을 자극하게 되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게 하여 국제수지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소유권박탈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국내자본부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로얄티의 지급이나 과실송금 등에 의해 자본이 도리어 유출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특정산업에서 국내 시장을 석권하여 독점이나 과점을 형성하게 될 때 이에 따르는 비능률, 과다이윤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둘째로 외국인기업의 국내생산으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국제수지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 2. 외국인투자의 실적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80년대까지는 별로 큰 실적이 없이 미미하였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90년대에 들어와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투자대상업종이 대폭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였는바, 1994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의 기간과 폭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1995년 1월부터 정부의 신고접수 및 사후 관리업무를 외국환은행으로 위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수속을 한 장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 체제(one-stop service system)를 구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업종이 대폭 자유화됨으로써 투자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1993년 6월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던 업종들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한 것이 외국인투자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 1996년 5월 OECD 가입을 앞두고 다른 OECD 국가들과의 수준에 맞는 개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개방 확대조치를 보완한 것도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개방적인 외자유치정책은 1997년의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더욱 계속 꾸준히 유지·확대되어 왔다.

이 결과 1990년도에 8억불(신고기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5년에 19.4억불, 1997년에 69.7억불, 1999년에 155억불, 그리고 2000년엔 157억불을 유치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8억불 수준에서 2000년에 와서 그 규모가 157억불에 달했다는 것은 그 증가속도를 봐서 가히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1년도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당초 목표치인 150억불에 못미치는 118.7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의 세계경기 회

복이 예상보다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9.11사태라는 예측치 못한 미국테러 사태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테러사태 때문에 지연, 무산된 프로젝트가 대략 40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의 외국인투자유치액이 520억불이며 이는 '97년 이전까지의 유치총액(246억불)의 2배가 넘는 실적 기록이라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2001년의 주요 외국인투자 활동은 이미 투자된 외국인기업의 증액투자, 전략적 제휴, M&A 부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수도 처음으로 10,000개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11,515개 기업) 외국인 투자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미주, EU, 아주지역순으로 외국인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주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53.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분야가 30%, 서비스산업분야가 70%인데, 서비스산업중에는 금융, 통신 같은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에 40%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유형별로는 구주(舊株)매각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는 구주취득에 의한 M&A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올해인 2002년의 외국인투자전망은 어떠한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및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의 유치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30억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을 낙관하기 어렵고 또한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과 유치활동 다각화 등을 통해 올해에는 150억불 수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월드컵 기간 중국제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CEO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3. 외국인 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는 199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외국인간접투자)도 국내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외환위기 탓에 1998년에는 순유출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1999년부터 외국인 증권투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며 나아가서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증권투자는 국내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환율

등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여러 신흥 주변국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가 성장 및 투자, 수출입, 환율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형태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는 편인데, 여기서는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분석한 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김진용, 이정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2000. 5.)

위 연구보고서는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국내총자본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으며, 이어서 외국인 투자가 수출, 수입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판명됐으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경제성장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확대시켜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성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간접적인 파급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증권투자는 경제성장률에 유의성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며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

다 더 커 결과적으로 국제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증권투자는 수출과 수입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환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 증권투자는 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의 안정적 확대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며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및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오해 내지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았다. 몇 가지를 과제별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국부를 유출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가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기업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주장에는 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가치(제값)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기업에 들어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가치를 현재

가치화한 금액」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향후의 기업수익성을 높여줌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시켜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실제 매각대금이 장부가치보다 높아서 매각이익을 실현시킨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통신」을 들 수 있는데 1999년 5월 국내시세보다 약 20% 높은 24.85억불 규모의 해외DR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1998년 5월 건설기계, 지게차 부문의 해외매각으로 약 276억원의 매각이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로 제일은행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동은행의 향후 수익성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국부를 유출시킨다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향상으로 오히려 국부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봄이 옳다. 설령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선정하거나 진입장벽구축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절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둘째,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제2의 환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점증적으로 유입되어 2000년1월 현재 외국인 보유주식이 주식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20%에 도달하고 있다.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은 주식시장 활황의 한 요인으로 작용되며 그 결과 국내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외국인의 주식보유가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이 옳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경영권 획득보다는 주로 주가차익 및 배당에 의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으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소유주식이 급격히 변동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투자행태에 크게 영향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설혹 일시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2의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상수지가 아직 건전하며 또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국내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국제신인도를 높여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시장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외화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원화절상압력을 받으면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촉진을 위해 외자유치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다.

외국인투자는 우리기업의 체질강화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 금년(2002)들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수지가 아직은 건전하지만 여전히 수출과 투자의 저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는 원화절상압력보다는 원화절하(환율절상)압력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유입을 더욱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외환수급조절을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 5.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왔는데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 확대, 적대적 기업인수(M&A)허용, 외국인 토지취득 자유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나 실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

선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한 후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 (1) 실질적인 투자환경개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요인으로 임금, 지대 등 생산요소비용이 높고,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노사문제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로 지적하여 왔다. 이 세 가지 애로요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지만 특히 두 번째 애로요인인 행정적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절차를 축소하는 등 외형적인 개선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지도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규제를 계속하거나 불투명한 업무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규정해석에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유관부처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더욱 있어야 할 것이다.

### (2)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 운용

정부는 그동안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시켜 이제는 첨단산업을 지

원하는 서비스업체에까지 인센티브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기본적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와 투자규모 등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그 취지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때에 따라서는 경직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예컨대, 경쟁상대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신속히 유치하려고 할 때 이 제도운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고, 또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하면 실질적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성을 타파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가급적 국내외기업의 동등우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공정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 등에 관한 규율이 형평성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3) 기업경영·회계의 투명성 제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기

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하여 국내경제상황에 대한 외국인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기업의 경영 및 회계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상호지급보증, 장부외 부채의 존재, 우발채무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설령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투자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정보에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외국인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배타적 인식이 기업정보의 불투명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하겠는데, 지방정부차원에서 볼때도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들이다. 다만 이에 더하여 몇가지 사항을 추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4) 외국인투자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지원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전담지원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개선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의 인·허가 처리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투자상담에 신속히 대응하고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외국인투자 유인책의 개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유·무상 대부 또는 보조금 제도 등 독자적인 투자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조례등 법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지원제도 수립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합당한 투자유치 지원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바 지역개발보조금, 투자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마련한다든가 지역금융조달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고 싶은 최신 정보들을 제공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최근의 중요한 홍보방법은 internet homepage를 통한 홍보이다. 1997년 7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internet을 통한 홍보전략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internet homepage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최신 지역경제정보, 외국인투자관련법, 각종지원제도, 희망하는 산업별 합작분야, 투자대상 기업목록, 향후 지역경제 정책방향 및 전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의 지역내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전달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배타성,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6. 결론

IMF 경제위기 때처럼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게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유치임이 그동안의 경제회복성과를 검증하면서 확인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 투자우대조치 및 기업환경개선과 같은 단기적 차원의 외국인투자유치방안도 시급하지만 이와 더불어 시각을 좀더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아서 이에 걸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

